

##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긍정심리자본을 중심으로

최영준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An Analysis of Effects on Job Search of the Middle age's: Based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Young-Joon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40대 중년세대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의 4개 변인이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중년세대들의 학력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본 결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활동에서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년세대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은 낙관주의, 희망,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중년세대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21% 정도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job search efforts of people in their 40s(middle-aged) who live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ging,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These effects were analyzed using four variabl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hope, self-efficacy, optimism, and resilie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eneral descriptive statistics, varianc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middle-aged people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ore. Also,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job search effort score. Optimism, hope, and self-efficacy were found in the sub-domain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at affect the job search efforts of middle-aged people. The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on the job search efforts of these people was about 21%.

**Keyword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0's(Middle age's), Job Search, Unemployment, Reemployment

---

\*Corresponding Author : Young-Joon Choi(Dankook Univ.)

email: d333300@dankook.ac.kr

Received July 28,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September 2,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 1. 서론

높은 실업률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부는 청년인 20-30대는 청년 취업 지원정책, 은퇴를 앞둔 50-60대는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중년인 4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중년인 40대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15.66%를 차지하고 있다[1]. 중년세대는 사회생활을 20년 경과한 시점을 돌며, 인생의 후반기를 향해 나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중년세대는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살고 있다. 중년의 시기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로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과 지난 삶에 대해 재조명하고,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2]. 중년세대들은 코로나 시대의 높은 실업률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퇴직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3]. 연금과 은퇴 준비 등에 관한 준비도 없이 중년세대는 가계부채 악화 속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중년세대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 급여와 금전적 지원정책의 외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직활동을 원하는 이들의 긍정적 심리상태와 구직활동의 내적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취업과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3-5]. 인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리상태가 재취업태도 등과 연계되며, 실업률이 높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긍정적 강점을 향상시켜 구직활동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연구[4]도 제시되었다. 특히,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년기는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갖거나 가장으로서 성숙한 인격체로서 성장하여, 삶에 필요한 경제적 수준을 확립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중년들은 60세정년 이전의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면서 충분한 은퇴준비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중년의 구직을 향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영향요인은 중요하며, 긍정적 심리자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3].

긍정적 인적자원의 강점을 강조하고, 일터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의 4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이 제시되고 있다[4-9].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웰빙을 고찰할 수 있고, 인간의 삶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다[10]. 이러한 차

원에서 긍정심리자본의 각 구성개념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는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급격한 사회변화와 고도의 실업률 상황 속에서 중년세대가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잘 진행하도록 심리적 자본을 갖추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선행연구를 보면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6,7].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직원 참여와 경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직원 참여에는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가 정(+)의 영향을, 경력만족도에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이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8]. “신중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신중년의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주의, 희망이 중요한 영향임을 확인하고 재취업률 고양을 위해 자신감과 긍정적 자세, 구직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3].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20대 청년층, 장년층,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 20대를 청년 구직자를 위한 긍정심리자본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4]과 50대 장년층을 위한 긍정심리자본, 회복탄력성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3,5] 등의 연구는 있으나, 의외로 40대 중년세대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구직활동에 관한 연구의 시도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중년세대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과 긍정심리자본을 연계하여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논의와 정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 영향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의 분석을 위해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설문지를 심리상담학과 교수 등 긍정심리자본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토를 확보한 후 사용하였다. 구인타당도에 변화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문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았고, 긍정심리자본의 개념화한 Luthans 등의 긍정심리자본[6,7]내용과 변인 그대로 인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경기지역에서 구직활동 중인 중년세대인 40대 연령층이었다. 설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교

육수준, 결혼상태의 일반적 변인과 긍정심리자본 및 구직활동 관련 변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은 선행연구[3-8]에서 제시된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 등의 4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활동은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을 원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구직활동 하위변인은 관련된 선행연구 [4,11,12]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직활동과 긍정심리자본 등의 변인들은 리커트(Likert-type) 5단계 척도로 작성하였다.

###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지역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구직활동 중인 중년세대 40대 연령층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구직활동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 2.2 조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의 3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심리자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 4개 변인과 하위변인으로 총 24개 변인을 구성하였고, 구직활동 하위변인 4개 등 총 31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1과 같았다.

Table 1. Consist of the contents and the reliability

Area	Contents	Number of contents	Cronbach's $\alpha$
Personal features	Gender,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3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 areas & job search	self-efficacy	6	.898
	hope	6	.862
	resilience	6	.762
	optimism	6	.753
	job search	4	.860
	Total	31	-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관련 6개 하위변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898로 나타났다. 희망의 하위 6개 변인의 Cronbach  $\alpha$  계수가 .862, 탄력성의 하위 6개 변인의 Cronbach  $\alpha$  계수가 .762, 낙관주의의 하위 6개 변인의 Cronbach  $\alpha$  계수가 .753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관련 4개 하위변인들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가 .860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 변인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았다.

Table 2. Validity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reas	components				
	ef	ho	re	op	
efficacy1	<b>.737</b>	.146	-.306	.247	
efficacy2	<b>.820</b>	.037	.272	.201	
efficacy3	<b>.666</b>	.269	.354	.128	
efficacy4	<b>.814</b>	.200	.166	.084	
efficacy5	<b>.916</b>	.442	-.122	.164	
efficacy6	<b>.826</b>	.026	.134	.205	
hope1	-.250	<b>.737</b>	.283	.098	
hope2	-.221	<b>.827</b>	.224	.082	
hope3	.286	<b>.830</b>	.137	.153	
hope4	.099	<b>.768</b>	.232	.086	
hope5	.091	<b>.837</b>	.325	.110	
hope6	.125	<b>.663</b>	.284	.123	
x	resilience1	.225	.055	<b>.601</b>	-.456
	resilience2	.163	.098	<b>.894</b>	-.372
	resilience3	.136	.320	<b>.706</b>	-.432
	resilience4	.394	.222	<b>.792</b>	.076
	resilience5	.183	.089	<b>.727</b>	.231
	resilience6	.081	.241	<b>.791</b>	.171
	optimism1	.137	.243	.341	<b>.725</b>
	optimism2	.348	.225	.179	<b>.745</b>
	optimism3	.150	.207	.067	<b>.698</b>
	optimism4	.321	.232	.197	<b>.612</b>
	optimism5	.231	.380	.017	<b>.549</b>
	optimism6	.172	.327	.241	<b>.649</b>
	% of Variance	24.35	22.04	19.31	13.19
	Cumulative %	24.35	46.39	65.70	78.89
	number of contents	6	6	6	6

긍정자본심리 구성변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의 4개이었고, 2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24개 하위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78.89%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의 구성요인을 보면, 자기효능감은 장기적인 문제의 분석, 곤경의 대처, 전략적 기여, 정보제시, 외부인과의 소통, 목표설정, 협력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희망은 곤경시 대안제시, 문제의 해결방안 보유, 목표의 달성에 최선, 목표의 달성에 대한 사고, 일의 성공, 설정한 목표의 자기 충족의 6개 문항으로

로 구성되었다. 탄력성은 좌절의 극복, 어려움의 관리 능력, 자기주도성, 스트레스의 극복, 경험을 통한 문제해결, 멀티적 기능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낙관주의는 문제발생시 긍정수용, 불확실 속에서의 기대감, 긍정적 주시, 미래 낙관, 고난을 희망으로, 맡은 일을 원하는 방법처리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3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수집은 중년세대인 40대의 경기지역 구직활동자(경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0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여, 260부(87%)를 회수하였다. 이중응답이 있는 설문지 30부는 제외하였다. 회수된 230부의 설문지는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인 230명의 40대 중년세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reas		N	Ratio(%)
Gender	Male	92	40.0
	Female	138	60.0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12	5.2
	high school graduation	84	36.5
	technical college graduation	56	24.3
	university graduation	62	27.0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ion	16	7.0
Marital status	single	42	18.3
	married	188	81.7
	Total	230	100.0

성별로 보면 남성 40%(92명), 여성 60%(138명)로 여성이 많았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미만 5.2%(12명), 고졸 36.5%(84명), 전문대졸 24.3%(56명), 대졸 27%(62명), 대졸이상 7%(16명)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기혼인 상태가 81.7%이고, 혼자인 상태가 18.3%로 나타났다.

중년세대들의 긍정심리자본 하위 4가지 변인과 구직활동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았다.

Table 4. The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earch

variable	mean	SD
self efficacy	3.42	.606
se1	3.35	.674
se2	3.29	.768
se3	3.42	.759
se4	3.49	.740
se5	3.43	.826
se6	3.54	.690
hope	3.66	.547
ho1	3.53	.691
ho2	3.68	.693
ho3	3.79	.641
ho4	3.73	.807
ho5	3.52	.691
ho6	3.67	.730
resilience	3.43	.462
re1	3.44	.773
re2	3.48	.625
re3	3.68	.655
re4	3.29	.745
re5	3.51	.582
re6	3.21	.706
optimism	3.58	.461
op1	3.36	.726
op2	3.55	.690
op3	3.65	.661
op4	3.54	.727
op5	3.46	.739
op6	3.89	.582
job search	3.92	.519
job1	3.79	.680
job2	3.92	.608
job3	3.97	.619
job4	4.00	.561

긍정심리자본 4개 하위변인 중에서 평균은 희망이 3.66으로 나타났고, 낙관주의 3.58, 탄력성 3.43 자기효능감 3.42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461에서 .826까지 분포하였다.

자기효능감에서는 se2(곤경대처 자신감)가 3.29로 나타났다. 희망에서는 ho5(일의 성공)이 3.52로 나타났으며 ho3(목표달성에 최선을)이 3.79로 나타났다. 탄력성에서는 re6(멀티기능)이 3.21로 나타났으며 re3(자기업무 주도성)가 3.68로 나타났다. 낙관주의에서는 op1(문제발생시 긍정수용)이 3.36으로 나타났으며, op6(맡은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3.89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job4(구직활동은 삶에 유익)이 4.00으로 나타

났으며 job1(구직을 위한 노력과 시간 투자)이 3.79로 나타났다.

중년세대들의 성별에 의한 긍정심리자본과 구직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Table 5와 같았다. 긍정심리자본은 성에 따른 유의차가 없는 반면, 구직활동은 5% 유의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t_{(228)}=2.04$   $p<.05$ ).

Table 5. The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earch by gender

variable		N	M	S.D.	t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le	92	3.58	.417	.167	.096
	female	138	3.48	.451		
job search	male	92	4.00	.432	2.04	.043*
	female	138	3.87	.564		

중년세대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긍정심리자본과 구직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Table 6과 같았다. 중년세대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구직활동은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년의 긍정심리자본과 구직활동은 기혼 또는 독신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Table 6. The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earch by marital status

variable		N	M	S.D.	t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ingle	42	3.44	.419	1.34	.181
	married	188	3.54	.443		
job search	single	42	3.88	.633	0.53	.595
	married	188	3.93	.491		

학력수준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Table 7은 학력수준에 따라 긍정심리자본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637$ ,  $p<.000$ ).

Table 7. The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y educational level

Areas	n	mean	S.D.	F	p	Sheffé test
1)under high school	12	3.30	.467	6.637	0.000	(1)-(5)* (2)-(5)* (3)-(5)* (4)-(5)*
2)high school	84	3.49	.456			
3)technical college	56	3.48	.423			
4)University	62	3.51	.377			
5)higher than University	16	4.02	.305			
계	230	3.52	.439	p<0.05		

학력별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사후검증(post-hoc)으로 S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Sheffé검증결과, 대졸이상과 나머지 집단 간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중년세대들의 학력수준에 따른 구직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8. The analysis of job search by educational level

Areas	n	mean	S.D.	F	p	Sheffé test
1)under high school	12	3.54	.552	8.003	0.000	(1)-(5)* (2)-(5)* (3)-(5)* (4)-(5)*
2)high school	84	3.89	.429			
3)technical college	56	3.80	.474			
4)University	62	3.99	.578			
5)higher than University	16	4.47	.417			
계	322	3.92	.519	p<0.05		

Table 8은 학력수준에 따라 구직활동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003$ ,  $p<.000$ ). 학력별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사후검증(post-hoc)으로 S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심리자본과 동일하게 구직활동에서도 대졸이상과 나머지 집단 간에서 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구직활동과 긍정심리자본 하위변인 변인의 상관관계는 Table 9와 같았다. 긍정심리자본과 구직활동 변인들은 유의수준 1%에서 상관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직활동과 긍정심리자본 하위변인 중 희망 상관계수가 0.407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이 0.400, 낙관주의가 0.352, 탄력성이 0.262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0.755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 상관계수는 0.526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earch

variable	job search	self 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job search	1				
self efficacy	0.400**	1			
hope	0.407**	0.755**	1		
resilience	0.262**	0.567**	0.629**	1	
optimism	0.352**	0.526**	0.554**	0.671**	1

p= 0.00\*\*

중년세대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심리 4개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았다.

Table 10. Th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on job search

Regression Model	B	S.E.	Beta	t	p
constant	2.220	.263		8.430	.000***
self efficacy	.163	.079	.190	2.057	.041*
hope	.217	.093	.229	2.339	.020*
resilience	.151	.099	.135	1.529	.128
optimism	.243	.093	.245	2.612	.009**

R= 0.459 R<sup>2</sup>= 0.221  
Adj R<sup>2</sup>= 0.210 F= 14.974 p= 0.000\*\*\*

수정된 결정계수 R<sup>2</sup>가 0.210으로 긍정적심리자본의 4개 하위변인중 탄력성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가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약 21% 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회귀계수들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희망과 낙관주의가 5%의 유의수준에서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심리자본 하위변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면, 낙관주의가 0.245, 희망이 0.229, 자기효능감 0.190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상태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년들의 구직활동에 낙관주의, 희망,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심리자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결론 및 제언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40대 중년세대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심리자본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긍정적심리자본은 3.0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둘째, 성별로 보면 구직활동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심리자본은 차이가 없었다. 중년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구직활동과 긍정적심리자본은 차이가 없었다. 셋째, 학력별 긍정적심리자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심리자본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구직활동에서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 40대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적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을 분석한 결과 낙관주의, 희망,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21% 정도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40대 중년세대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지원과 안정도 중요하다. 즉, 심리적 긍정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심리자본은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개인의 긍정적심리자본을 제고시켜 개인의 발전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 40대 중년세대들의 구직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낙관주의적 사고와 희망을 제시하여 긍정적심리자본을 제고할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구직활동 중인 중년세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구직상담에서 자신의 낙관주의적 사고와 희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실천이 가능하도록 긍정적 피드백과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학력별 긍정적심리자본과 구직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긍정적심리자본과 구직활동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년세대의 고학력자들의 구직활동에 긍정적심리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gender/age,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accessed April 7, 2022)
- [2] E. J. Ryu, Re-employment Experience of Middle Age Adult Learner through Transformative Learning,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ing Education*, vol.8, no.1, pp.257-282, 2019. DOI: <http://dx.doi.org/10.20497/jwce.2019.8.1.257>
- [3] H. S. Lee, Y. G. Lee, The Impact of 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5, pp.33-40,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033>
- [4] Y. J. Choi, G. J. Park, The Impact of the Youth'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Attitud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40-46,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0.40>
- [5] K. Y. Kang, J. k. Lee,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4, No.1, pp.41-67, 2017.

DOI: <http://dx.doi.org/10.16983/kjsp.2017.14.1.41>

- [6]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Working paper No. 2006-1). Gallup Leadership Institut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2006.
- [7] Luthans, F., Norman, S. M., Avolio, B. J. & James B. Avey,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Supportive Organizational Climate: Employee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9, no.2, pp.219-238, 2008.  
DOI: <https://doi.org/10.1002/job.507>
- [8] M. Y. Park, Y. C. Jang, G. H.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Employee Engagement and Career Satisfaction: Focused on the Employee Organization of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rea by Multi-Group Analysi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8, no.12, pp.3095-3130, 201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068940>
- [9]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10]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2, pp.34-43, 2000.
- [11] Y. J. Choi, G. J. Park, An Analysis of Effects on Job Seeking Activities of Unemployed in Fifties in Korea: Based on The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3, pp.522-528,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3.522>
- [12] Y. J. Shin, Mediator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 Among Reemployment Seek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and Job Search Behavior, Keimyung University, 2018.

최 영 준(Young-Joon Choi)

[정회원]



- 1990년 3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9년 2월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직업교육